

### 4·15 총선 선거운동 첫 날, 전주지역 후보자들 거리유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첫날인 2일 더불어민주당 김윤덕(사진 왼쪽부터), 무소속 김광수,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무소속 최형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민생당 정동영 후보 등 전주지역 후보자들이 거리에서 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다.

### 전북도내 10개 선거구 출마 후보자들

# 각자 방식대로 선거운동 '스타트'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운동 개시일인 2일 전북도내 10개 선거구에 출마하는 여·야 후보자들은 거리 유세와 방송 토론 등 각자의 방식대로 선거운동 첫날을 시작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후보 당사자만 유세에 나서는 모습도 목격됐다.

3명의 국회의원이 나오는 전주지역 곳곳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후보자와 선거운동원의 유세 운동으로 표심 공략에 나섰다.

출근길 차량이 붐비는 효자동 KT사 거리에서는 전주를 더불어민주당 이상직 후보가 상당수의 선거운동원을 동원해 퍼포먼스를 펼치며 지나는 시민에게 인사했으며, 불과 수백m 떨어진 안평로 사거리에서는 경쟁 상대 후보인 무소속 최형제 후보가 방송 차량

코로나19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동참 차원

후보 당사자만 조용한 선거운동 실시하기도

일부 후보는 방송토론·선거운동원 퍼포먼스

등을 이용해 유권자를 향해 한 표를 호소했다.

같은 지역구 민생당 조형철 후보도 전주 효천지구 주변에서 운동원과 함께 출근길 운동에 나섰다. 정의당 오형수 후보는 당원들과 함께 완산구청 주변에서 유세를 펼쳤다.

전주갑 민주당 김윤덕 후보는 전주 한빛안과 사거리에서 10여명의 운동원과 함께 출근길 인사를 한 후 전주군 경모지 참배로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전주병 민생당 정동영 후보는 종합경기장 사거리에서 출근 유세를 시작했다.

일부 후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위기 극복을 위해 시행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며 개인 및 부부 유세로 단순화하는 등 조용한 선거운동을 실시했다.

이날 전주갑 무소속 김광수 후보는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부인과 함께 출근 인사를 했다.

전주병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도 홀로 송천역 사거리를 찾아 첫 유세일정에 나섰다.

또한 김제·부안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후보는 '국난 극복 선거운동'에 돌

입, 코로나19 극복에 동참하기 위해 별도의 출정식 없이 조용하고 차분한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이 후보는 선거대책위원장 및 민주당 시·도의원들과 김제 군경모지, 성산공원 충혼비에 참배하며 첫 일정을 소화했다.

같은 지역구 민생당 김경민, 무소속 김중희 후보는 오전 라디오 토론회에 참석해 자신의 공약을 알리는 것으로 첫날 일정을 시작했다.

이번 총선에 전북은 10개 선거구에 44명의 후보가 등록했다. 더불어민주당 10명, 미래통합당 4명, 민생당 6명, 정의당 4명, 민중당 1명, 국가혁명배당금당 7명, 기독교자유동맹당 2명, 무소속 10명이 각각 입후보했다.

한편 3일에는 선거인명부 확정과 선거벽보를 첩부하게 되며, 6일 선상투표를 개시한다. /특별취재반

### 군산지역 후보자들 선거운동 돌입

민중 신영대·통합 이근열·무소속 김관영 등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군산지역 후보가 오는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 승리를 다짐하며 14일 간의 공식 선거 운동에 돌입했다.



신영대 후보



이근열 후보



김관영 후보

신 후보는 '뒤로 간 8년, 앞으로 갈 신영대'라는 슬로건을 걸고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재가동을 중심으로 경제 살리기 5대 공약과 지역현안 및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민생분야 7대 전략 및 85대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또 이날 신영대 선거대책위원회는 상대 후보 비방 없는 선거, 비전과 정책을 논하는 선거, 준법선거 등의 클린선거 실천단을 발족해 운영에 들어갔으며 코로나19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조용한 선거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이근열 군산시 미래통합당 후보도 기호2번을 달고 4월 15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신 후보는 이날 미래통합당 전북도당은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해 총선 승리를 위한 행보에 돌입했다. 이 후보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부지를 활용해 최대 규모의 선박수리소 활용하는 대표 공약과 함께 이근열의 군산비전 10대 공약을 제시했으며 지역현안 및 시민들의 삶과 연관된 민생분야 세 부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호흡기 바이러스성 질환인 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최대한 조용한 선거운동을 펼치기로 했다.

무소속 김관영 군산시 국회의원 후보도 군산 경제 회복의 책임자를 자부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2일 김 후보는 수송동 롯데마트 4거리에서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김 후보는 이날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살계도를 그린 사람이 가장 잘 완성할 수 있다"면서 "위기를 넘어 재도약 하는 군산을 만들 수 있게, 군산 시민의 현명한 선택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 후보 측은 '코로나19 확산세를 감안해 차분한 선거를 치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별취재반

### '이 빵 맛있게 드시고 투표 꼭 하세요'

도선관위 '투표빵' 시선집중... 제과협회 전북지회와 공동 기획

"투표빵 먹고 4월15일 꼭 투표하세요."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대한제과협회 전북도지회가 공동 기획하고 홍보에 나선 '투표빵'들이 시선을 끌고 있다.

투표빵은 기존에 볼 수 없던 독특한 선거 홍보 전략으로 두 기관이 지난 2월19일 업무협약을 체결하면서 탄생했다. 카스텔라와 팔크림빵 등 여러 가지 빵에 기포 문양과 '4·15 투표하세요'

요'라는 문구를 새긴 것으로 도내 7개 동네 빵집에서 판매된다. 전북선거관리위원회는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 페이스북을 통해 투표빵 인증샷 이벤트를 진행해 이벤트 응모자 중 200명을 추첨해 기프트콘을 상품으로 줄 예정"이라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당부했다. /특별취재반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위해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와 (사)대한제과협회 전북도지회가 공동 기획해 만든 각종 투표모양의 빵. (사진=전북도선관위 제공)

### 4·15 총선 후보자 이모저모

#### 김윤덕, 선거운동 첫 날 조용한 유세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전주갑 국회의원 후보는 법정 선거운동이 시작된 2일 자신의 지역구인 중화산동 일원에서 출근길 인사를 시작으로 선거유세를 진행했다.



이날 김윤덕 후보는 선거운동에 앞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소란을 떨며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예외에 어긋나는 방법"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최대한 조용히 선거에 임하지만 상식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성실하고 열심히 뛰며 시민들께 다가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 후보는 "이번 4.15 총선은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고 나아가 전북과 전주의 혁신적인 발전을 이어나갈 중요한 선거"라고 평가하고 "전주시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 기호1번 김윤덕을 압도적으로 당선시켜 주실 것을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코로나19 방역 차원에서 대면 접촉을 줄이고 시끄럽지 않는 선거운동을 추구하는 대신 길거리 인사와 전화 통화, SNS를 이용한 소통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취재반

#### 정동영 "민주정권 재창출 위해"

민생당 정동영 후보(전주병)가 2일 오전 7시 전주 종합운동장 사거리 아침인사를 시작으로 13일 간의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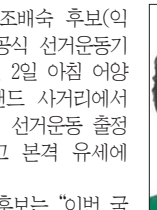
정 후보는 "시민 여러분의 조용한 아침을 유세로 깨뜨린 점에 대해 사과한 뒤 13일 간의 공식 선거운동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정 후보는 전주발전, 전북발전을 위해 자신을 부러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정동영 후보는 민주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힘이 있는 전북 정치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전주발전, 전북발전을 위해 자신은 부러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정동영 후보는 민주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힘이 있는 전북 정치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전주발전, 전북발전을 위해 자신은 부러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정동영 후보는 민주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힘이 있는 전북 정치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전주발전, 전북발전을 위해 자신은 부러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정동영 후보는 민주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힘이 있는 전북 정치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 후보는 "전주발전, 전북발전을 위해 자신은 부러달라고 호소했다. 특히 정동영 후보는 민주정권의 재창출을 위해서 힘이 있는 전북 정치인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조배숙, 총선 선거운동 출정식

민생당 조배숙 후보(익산을)가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2일 아침 어양동 전자랜드 사거리에서 21대 총선 선거운동 출정식을 갖고 본격 유세에 나섰다.



조배숙 후보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중단 없는 익산 발전을 위한 책임자를 가리는 선거"라며 "5선 국회의원, 국회 최다선 여성 의원의 경륜과 정치력으로 익산의 도약을 이끌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후보는 "선거운동기간 동안 오직 민생 현장 속으로 파고 들어 시민 여러분께 진정성과 역량을 인정 받고, 반드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조 후보는 이날 오후 3시에 KTX 익산역서 민생당 정동영(전주병), 고상진(익산갑) 후보 등과 함께 합동유세에 나섰다. 한편, 조 후보는 이번 총선 주요공약으로 ▲민생당 국가정원 조성, ▲익산형 청년벤처 실리온밸리 조성,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남산 폐식산 폐기물 이적처리, ▲익산 약취문제 해결 등을 제시했으며, 이를 통해 익산의 '1천만 관광시대', '청년벤처 성공시대'를 열어가겠다고 밝혔다. /특별취재반

#### 이강래 "이용호 후보 정치공세 중단을"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남원·순창·임실)는 무소속 이용호 후보가 1일 남원시장·순창군수에 게 보낸 공개질의서 발언과 관련해 남원시장과 순창군수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것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라고 주장했다.



이질의서에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같은 당 소속 지역위원장이 있는데 다른 후보를 끌어들이는 식으로 당내 경선에 개입했고, 복귀를 요청한 만큼 본선에까지 개입해 관권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는 게 이 후보 측 주장이 담겨있다. 이강래 후보는 이 같은 공개질의서는 방송토론회 과정에서 "왜 출마했느냐? 왜 내려왔느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일환으로, 같은 당 소속 단체장들과 사적으로 그것도 직·간접적으로 나는 얘기를 토론회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소개한 것인데, 불법 관권선거 운운하며 관련 단체장들을 압박하여 발목잡기에 나서는 것으로, 이는 다분히 의도적인 정치공세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반

#### 이용호, 지자체장들에 공개질의서 보내

무소속 이용호 후보는 모 방송토론회에서 이강래 후보가 발언한 지역구로 다시 복귀한 이유로 "남원시장, 순창군수가 지역으로 돌아오라고 했다"는 발언에 대해 명확한 사실 관계를 밝혀 줄 것을 요청한다"며 남원시장과 순창군수에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이용호 의원 측은 이 발언에 대해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이 같은 당 소속 지역위원장이 있는데 다른 후보를 끌어들이는 식으로 당내 경선에 개입한 것이고, 복귀를 요청한 만큼 본선에까지 개입해 관권선거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의심케 하는 발언"이라며, "공직선거법상 정당에는 가입할 수 있으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지자체장이 불법 관권선거에 관여했다고 의심케 하는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이에 이강래 후보 발언에 대한 남원시장, 순창군수의 입장은 무엇인가를 물으며, "양 지자체장이 그런 발언을 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이강래 후보가 방송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별취재반